

오재준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장 취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신임 오재준 단장이 2025년 1월 2일, 제21대 새만금사업단장으로 취임한다.

오재준 단장 내정자는 새만금 사업이 지난 국가적 중요성과 국민적 기대를 깊이 인식하며, "실제부터 완공까지 우리 기술로 완성된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를 기반으로 농생명 융지, 산업단지 등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현장 및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약속했다.

이어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사고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구성원과 함께 새만금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재준 단장 내정자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한 이후 새만금사업단지사업단 사업관리부장, 본사 기반사업처 사업총괄부장, 무진장지사장 등 다양한 요직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솔홈데코, 푸른익산 만들기에 1000만원 기탁

익산시는 (주)한솔홈데코가 시청을 방문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동참하고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주)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나무 식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심경보 (주)한솔홈데코 공장장은 "녹색정원도시 익산 조성에 보탬이 되고자 푸른익산가꾸기 사업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푸른익산만들기 나무 심기에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나노엔지니어링, 김제시에 상품권 1003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나노엔지니어링(주)(대표 김성희)이 지난 31일, 김제시상품권 1,003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기부된 상품권은 관내 취약계층 100여대에 각 1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김성희 대표는 "경제난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상품권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나노엔지니어링(주)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어·한국 문화... 끈끈한 교류 이어가

전주대 한국어문학과·베트남 한베산업기술대 한국어학과, 16일까지 약 3주간 실습 이어져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가 베트남 빈(Vinh) 한베산업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와 끈끈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에서 시작된 실습이 오는 16일까지 약 3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전주대 한국어문학과는 이번 현지 실습을 위해 재학생 6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한국어교육 실습에는 2학년 학생을 비롯한 만학도 재학생이 예비 교사로 참여했다. 이번 실습에서는 한국어 TOPIK 1, 2, 3급 수준의 한베산업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수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한베산업기술대학교 한국어학과와 상호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베트남 한베산업기술대학교는 베트남 응안 성 빈(Vinh)시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제과제빵, 산업전기, 자동차공학 한국어학 등 직업훈련을 하는 학교다.

한국어문학과 박현진 학과장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베트남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한국어교육 실습은 원어민 교사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양 기관의 상호 업무 협약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비전대-펜타게이트, 글로벌 산학협력 추진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최근 베트남 롱안(Long An)성 컨퍼런스 센터에서 (주)펜타게이트와 'Tan An시의 스마트 교통 안전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의 효율성 평가 및 견본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과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 식별 시스템' 관련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산학협력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베트남 롱안성 Tan An시의 순환도로와 교차로 등에 설치된 스마트 교통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롱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판 탄 호아(Pham Tan Hoa), 정보통신국 국장 응 우옌바루안, 롱안성 지구 부회장, Tan An 경찰, 전주비전대학교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주)펜타게이트 오정훈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판 탄 호아 롱안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롱안성의 디지털 전환, 관리 및 스마트 도시 건설 목표를 위한 정책과 전주비전대학교 및 (주)펜타게이트에서 함께 연구한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부합된다"며 "성공적인 베트남의 스마트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근상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행사는 전주비전대학교와 (주)펜타게이트의 다양한 산학협력활동을 통해 창출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며 "특히 롱안성의 교통 안전과 도시 안전 분야의 기술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디딤돌회, 디딤씨앗통장 670만원 후원

익산시는 디딤돌회(회장 임광수)가 시청을 방문해 디딤씨앗 저축 저조 아동을 위한 후원금 670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저축 금액의 2배를 지원한다. 아동이나 후원자가 5만 원을 저축하면 지원금 10만원이 더해져 15만원이 적립된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디딤씨앗통장 저축 저조 아동 19명

에게 12개월간 3만 원씩 지원된다. 670만 원의 기탁금에 지원금이 더해지면 2,000만 원의 후원 효과가 발생해 아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광수 회장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잘 전달해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순덕 원주군의원, 유희태 군수로부터 감사패 받아

원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지난 30일 원주군 경제센터에서 실시된 원주물 운영성과보고회에서 유희태 군수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제278회 원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정책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원주형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원주물을 구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순덕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이후 변화된 소비생태계를 파악하고, 우리 원주군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물 구축사업을 제안했으며, 이후 해당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원주물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순덕 의원은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적적인 목표를 위해 고심한 끝에 최근 소비트렌드를 파악해 제안하게 되었다"며 "이번 감사패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쇼핑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준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것을 느끼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많았다"며,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주=염재복 기자



원진알미늄, 전북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주)원진알미늄이 전북대학교에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전북대 발전기금재단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태연 대표는 "최근 지역 인재 유출로 수도권 출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며 "기금을 통해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원진알미늄은 완주군에 본사를 둔 알루미늄 전문 기업으로, 전북 유일 우수제품 등록업체이자 전 공정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시가스(주)
JEONBUK CITY GAS CO., Ltd.

謹賀新年：

누구나 행복한 새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
새해에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여러분의 가스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감 신청 안내

전북도시가스(주)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요금을 감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전북도시가스(주) 홈페이지(www.jbcitygas.co.kr)를 참조하시어
소정의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1811-7700)